

### 제 3 장 로마 총독 지배 하의 유대

#### 1. 유대의 로마 총독제도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와 이두메 지방을 물려받은 아켈라오는 그의 학정으로 로마에 의해 퇴위됩니다. 그 후 유대 지방은 로마총독령이 되었습니다. 유대 땅이 로마 영지로 격하되어, 황제가 임명하는 총독에 의해 통치됨으로 자치권 더 제한된 것입니다.

아켈라오 파면 당시 시리아 사절은 술피우스 구레뇨(P. Sulpicius Quirinius)로서, 아켈라오 재산 정리와 속국 조공 액수 결정을 위해 인구조사를 단행했습니다 (비교. 눅 2:2. "이 첫 번째 호적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유대는 이 인구조사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외세의 통치를 위한 인구조사를 굴욕으로 생각한 켈롯당(zealot='열심당')은 드디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이 진압되고 인구조사가 끝난 후 처음 취임한 유대 총독이 '코포니우스'입니다. 통치 방법은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지경을 다스리면서, 유대의 대제사장의 법의를 지킴으로 대제사장들을 로마당국 통치 아래 있게 만들었습니다.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말썽이 나기 쉬우니까 병력을 증강하여, 감독했습니다. 유월절 같은 특별한 시기, 총독은 원래 거주하던 가이사라 사령부를 떠나 예루살렘에 체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당하실 때,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후 9년 마르쿠스 암비비우스가 총독으로 임명받았고, 3년 후 아구스도 (주전 27-주후 14 로마제국 통치)가 죽었을 때는 안니우스 루푸스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디베료 황제 (주후 14-37. 티베리우스)는 총독을 내버려 두는 정책을 써, 총독의 수탈을 묵인함으로써, 새 총독이 더 수탈하는 것을 막으려 했으니 그들의 수탈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케 합니다. 주후 15년경 임명된 총독은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였는데, 그는 4명의 대제사장을 갈아치우는 등 막강한 권력 휘둘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임명했던 대제사장이 안나스의 사위 요셉 가야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준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요 18:13). 신약시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다는 본기능은 거의 상실했고 본인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려, 권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로마세력과 결탁하여 권력을 행사하던 대제사장들은 자신들 권력유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였던 당시 메시아운동 지도자 예수님을 그냥 나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칭 메시아라는 죄명을 붙여, 황제모독, 하나님모독, 곧 신성모독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사형권은 당시 로마총독에게만 있어, 빌라도가 사형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총독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서로 결탁한 것입니다. 당시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총독 빌라도: 빌라도가 그라투스를 이어 총독으로 임명된 것은 주후 26년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박은 장본인입니다. 요세푸스 등 당시 사가들에 의하면, 그는 '고집스럽고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금기시된 황제 초상군기를 들여오으로써 유대인들의 큰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디베료 황제를 기념하는 금방패를 설치하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빌라도는 수로 공사 경비를 성전세로 담당하도록 지시한 후 유대인들이 반대하자 남자가 해마다 내는 반세겔 헌납기금을 착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시위를 강제로 해산시키면서 그가 행한 잔인한 행동이 눅 13:1에 암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과 뒤섞이게 하였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공동번역) 빌라도는 그리심산 언덕 위 사마리아의 순례자 무리를 공격하는 등 극도로 잔혹한 행동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 사마리아 지도자들은 시리아 총독 (주후 35-39)인 루키우스 비텔리우스에게 항의했고, 빌라도는 주후 36년 로마로 송환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만에 부활하신 직후에 그는 쫓겨난 것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죽은 후 주후 37년 새 총독 마를루스가 임명되어 가이오 통치 기간 중 로마 총독 지배는 계속되었으나 헤롯 아그리빠 (주후 37-44년 재위) 생존시 유대는 로마에 의해 직접 통치받지 않고 유대 왕들에 의해 관리되게 되었습니다.

브루스(F. F. Bruce)는 신약의 배경이 되는 1세기 예루살렘 인구를 요아킴 예레미아스를 좇아, 25,000내지 30,000명정도, 그리고 축제시에 3배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 시대 팔레스틴 인구 전부를 합치면 50이나 60만 정도였다고 부루스는 짐작합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유대는 조공을 바쳐야 했고, 신정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종교적 부담금도 내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30-40%의 높은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백성들의 분노는 로마는 물론 자국의 부자들에게까지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피폐한 삶을 살고 있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주후 66-70년의 유대-로마 전쟁입니다. 결국 70년 예루살렘성은 로마에 의해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유대와 로마와의 관계입니다.

로마는 앞서 언급한 셀류키드 왕조처럼 혹독하게 팔레스틴을 다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동안 느낀 설움과 좌절은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배경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로마제국의 역사가의 관점에서는 여러 총독 중 하나인 빌라도 재임 시 유대백성 사이에서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은 별로 중요치 않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제국의 한 지방관리 총독에 의해 처형된 예수가 2세기 정도가 흐른 뒤 로마 전체를 정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 제 4 장 철학학파들

제 4 장에서는 특히 등장하는 사건의 연도나 이름을 외우기보다 전체적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는 예수님 사역 당시 시대를 풍미했던 사상적 배경을 짚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이 헬라적 문물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면 헬라 철학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적 조류의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제자 알렉산더 대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헬라인들에 비해 비헬라인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라 사회는 극도로 이상적인 공동체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복 사업의 결과로 다른 세계와 접촉한 헬라인들은 새로운 세계주의(Cosmopolitanism)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철학사상이 에피큐로스 학파(Epicureans)와 스토아 학파(Stoics)입니다. 철학개론 시간이 아니니 너무 자세하게는 않겠습니다.

### 1. 에피큐리안 사상

에피큐러스(Epicurus, 주전 341-270년)는 사모스 섬으로 이주해 온 아텐계 사람으로, 물리학, 윤리학에 대한 체계를 세워 자기 집에 학교를 세우고 노예나 여자들도 자유민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에 깊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들은 무한한 공간 속에서 필연성에 따라 움직이는 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피큐러스는 이 이론에 '탈선의 원리'를 부가하여 원자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나 생물이 죽게 되면 영혼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흩어져 감각이 중지된다고 주장하여 영혼불멸설을 부인하는 유물론적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자의 세계에 살면서 동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그에게 있어 최고 상태는 근심에서 자유로운 무감동(ataraxia)이었고, 이런 맥락에서 에피큐러스의 최고 선은 '쾌락'이었습니다.

이 철학학파는 저속한 생활 양식 때문에 비판받았는데, 이들의 약점 중 가장 큰 것은 '인식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감각과 감정에 달린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언제라도 잘못 인도할 수 있는 오감(五感)이 어떻게 무오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자신의 교리가 참되다고 확신할 수 없었기에, 추구할 유일할 가치는 '쾌락'이고, 피해야 할 단 하나는 '고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2. 스토익 사상

에피큐리안들이 스승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길 거부한데 반해 스토익주의자들은 창설자의 가르침을 발전, 수정시켰습니다. 그 창설자는 제노(주전 335-263년) 였는데 그는 '로고스'라는 개념을 세계와 인간 양자의 주요한 원리로 보았습니다. 즉 대우주인 세계 질서가 창조적

이성 (logos) 의 힘을 물질 위에 발휘하는 것처럼, 소우주인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성은 자연세계와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법칙은 또한 개인생활을 위한 법칙이기도 하다고 생각했기에 스토아적 생활방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범신론적인 사상으로, 자급자족이라는 스토아적 이상은 세계주의를 주장하는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내면적으로 강력한 개인주의자들이 되게 했습니다. 형제 사랑보다는 참고 견디는 것을 중요한 핵심적 가치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스토아의 사상 기초 중 중요한 것은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따뜻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스토아의 사상이 신약 성경에 반영되어 있다고 브루스(F. F. Bruce)는 생각합니다. 엡 5:3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도 불려서는 안된다'는 말이든지, 골 3:18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유사성은 인간의 보편성에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이지, 스토아주의 영향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윤리는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충분히 설명됨으로 굳이 스토아 영향이라 단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3. 기타 철학사상

이외에도 소요학파(Peripatetic school), 플라톤주의, 오르피즘, 피타고리안주의등 많은 철학사조가 있으나 여기서 자세하게 소개하지는 않고, 몇가지 특징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들 사상은 이원론적 사고를 그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르피즘은 오르푸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희랍의 신비주의 종교였습니다. 즉 오르푸스의 지옥방문 신화에 기초해서 불멸의 소망, 지하 세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육체의 감금 생활로부터 해방을 추종자들에게 약속하고 신비 종교 연극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또 피타고라스 학파 역시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이해하고, 윤회설등을 가르쳤습니다.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만이 윤회의 지루한 순환에서 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니 육신을 죄악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헬라사상을 유대 정신세계와 접목시킨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필로(Philo, 주전 20 - 주후 50년)였습니다. 그는 플라토니즘, 스토아주의, 신피타고리아니즘 등 헬라철학을 수용하면서도, 최고의 진리는 유대의 신성한 책, 그 중에서 특히 모세 오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에 기초하여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이주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은 그에게 궁극적인 실재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켜 주는 것이고, 사라와의 결혼은 지혜와의 결혼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필로는 플라톤의 관념론에서 성경 이해의 열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곧 창세기 1장에서 건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상 인간과 이상 세계가 창조됐다고 생각했으며, 2장에서 원형이 물질의 형태로 재현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마디로 필로이즘은 유대와 헬라사상의 독특한 결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울서신들이 필로와 동시대에 쓰여 어떤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해 보면, 바울의 쉬운 코이네헬라이어 문체는 필로의 복합어 투성이의 어려운 헬라이어 문체와 너

무 차이가 나서 놀라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예표론(typology)은 흔히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와 유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지만 사상적으로 차이가 커서 영향을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철학적 배경에 대한 이 강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복잡한 철학 사상의 편린들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헬레니즘(Hellenism)입니다. 신약 성서와 그 시대를 이해하려면 이 헬레니즘의 배경을 알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지 디아스포라 (포로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방방곡곡에 뿔뿔히 흩어진 것을 말해요)로 인해 헬레니즘 사상이 번진 것이 아니라, 주전 4세기 중반 이래로 헬레니즘은 헬라제국 지배를 통해 유대에 직접 전래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결과가 바로 신약 성서가 헬라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아람어를 쓰고 있었으나, 동시에 세계 공용어요, 문화어로 여겨졌던 헬라어도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나 빌립 같은 헬라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서의 헬레니즘적 요소들은 복음전달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헬라문화가 지배하던 당시 세계 선교를 위해 헬라어로 신약성서를 쓴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면서, 초대 기독교를 유대교와 헬레니즘의 혼합종교로 보려는 볼트만의 주장은, 영지주의의 구속자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속사건을 설명하려는 그의 시도와 함께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신약시대를 조망하는 구속사적 신약이해가 바람직한 성경 해석방법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기로 합시다.

## 제 5 장 대제사장들

### 1. 포로기 이후 대제사장들

제 2 성전이 세워진 후, 제사장들은 신정국가가 된 유대민족의 우두머리로 페르시아나 헬라 군주들에 의해 인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외세는 재정적 이익은 유대로부터 취하려 했지만 이들 민족 내부 일에는 별로 관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절부터 이어졌던 사독계열 대제사장들은, 셀류키드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시절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대표적인 일은 연중 3번 대축제, 즉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의 행사를 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속죄일(Day of Atonement)에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속죄를 비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1번, 양의 피를 의지하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제사장은 극도의 정결함을 요구받았습니다.

### 2. 하스모니안가의 대제사장직 승계

사독가의 마지막 합법적인 대사장은 오니아스 3세였습니다. 그러나 현인신이라고 자처하며

유대인들의 헬라화를 강요했던 폭군 안티오쿠스 4세에게 그는 주전 174년 자격을 박탈당하고 3년 뒤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동생 야손이 헬레화 정책을 약속하고 대제사장직을 승계했지만 그 역시 주전 171년 축출되었습니다. 다음 대제사장은 사독계가 아닌 메넬라우스가 맡게 되었으니 이렇게 제사장의 정통성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후 아론계였던 알키무스가 직책을 맡은지 2년만에 죽고난 후 대제사장직은 7년간 (주전 159-152년) 공식으로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직이 끊기게 된 때 하스모니안 왕가가 대제사장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유다 마카비우스의 후계자인 요나단은 대제사장 직분 (주전 152-143)을 셀류키드왕 알렉산더 발라스에게 인준 받았기에 그 죄로 결국 잡혀 사형되었습니다. 반면, 그 형제 시몬은 주전 142년 유대민족의 축복 속에 "신뢰할 만한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마카비 1서 14:41). 하스모니안 왕가의 대제사장직 승계는 왕가가 몰락할 때까지 계속됐는데 경건주의자들의 무리인 하시딤(바리새파의 원조)은 달가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대로 묵인했습니다.

반면 분리주의를 표방했던 쿰란 공동체(에센파의 한 분파)는 사독계 제사장의 회복을 꿈꾸며, 이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시대 문헌인 솔로몬시편을 지은 경건한 유대인 무리는 하스모니안왕조가 다윗가문에 약속된 왕권을 취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67년 로마 제국을 통하여 심판하셨다고 이해합니다 (솔로몬 시편 17:8). 이 무리들에게는 다윗왕조 회복을 가져올 메시아대망이 더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전 67년 하스모니안가의 왕비 알렉산드라가 죽고 난 후 두 아들인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틀루스 2세가 서로 심각한 왕권쟁탈전을 벌였죠! 일단은 로마가 힐카누스 2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파르디아가 침입했을 때는 아리스토틀루스 2세의 아들이었던 안티고누스가 제사장직과 왕좌를 차지합니다. 왕권쟁탈전이 가족 속에서 벌어지고 있을 동안, 주전 37년 로마의 후원을 받은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안티고누스를 처형했습니다.

### 3. 헤롯왕가의 대제사장 임명

헤롯 대왕은 이두메 출신이었으므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이름없는 하나넬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가 장모가 반대하니까 그 하나넬의 아들로 바꾸기도 하고, 그가 죽자 다시 하나넬을 앉히는 등 엉망이었습니다. 또 시몬이라는 제사장에게 마리아이라는 미모의 딸이 있었는데, 그녀와 결혼하려고 시몬에게 대제사장직을 부여했다가 다시 쫓아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도 유대를 9년간 다스리면서 대제사장을 세 번 바꿉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정치권력에 휘둘러 독자적인 직분 수행을 할 수 없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 4. 로마 총독하 대제사장직

유대가 로마의 속국으로 직접 통치를 받게 될 때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외세의 힘에 눌려 있을 때는 차라리 대제사장들이 존중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국 분봉왕이 통치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구요. 물론 대제사장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다는 점

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헤롯 통치기간이나 로마 속국으로 있을 때나 대제사장 의복은 안토니아 성채에 보관되어, 속죄일과 순례일에만 꺼내가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예컨대 구레노 인구조사시 유대 백성들이 이를 따르도록 중용한 대제사장 요아갈은 민중들의 미움을 받아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를 전후한 수많은 대제사장들을 일일이 열거해서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것은 대제사장들 역시 정치적 처세에 따라 인정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가령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는 18년간 대제사장직에 머물면서 활동했는데, 이것은 그의 탁월한 외교술과 대제사장을 가장 많이 배출한 안나스 가문 사위라는 점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직은 이런 상황 하에서 종교적 거룩함과 거리가 먼 지배계급으로 전락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약성서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영적 장님들이었습니다 (요 9:41).

#### 5. 유대 전쟁 직전의 예루살렘 대제사장들

유대 전쟁(주후 66-70년) 때라면 이미 예수님 지상사역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성서 기록 연대로 본다면 이 시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배경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헤롯 아그립바 I세가 주후 44년 죽은 후 유대는 총독 정치 하에 있었지만 대제사장 임명권은 다시 총독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 권한을 헤롯 아그립바의 형제였던 갈기스의 왕 헤롯에게 주었습니다. 48년 그가 죽자 제사장 임명권은 그의 조카인 아그립바 II세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그립바 II세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재판받을 때 만나게 되는 사람입니다 (행 25:13-26:32). 그가 바울더러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행 26:28)라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아그립바 II세가 임명한 대제사장 중 안나스의 아들 안나스 II세는 베스도 총독이 죽어 없는 동안 의로운 야고보와 몇몇 사람을 처형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후 셀롯당에게 피살당합니다.

결론을 간단히 말합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들은 전통적인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족 출신의 통치자와 이방 통치자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묵묵히 수행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정치 현안에 휘말려 들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구나 주후 70년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들의 기능은 사실상 무용한 것이 되어, 제사중심의 유대교에서 바리새파를 주축으로 율법 연구 중심의 유대교로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강조하게 된 것은, 대제사장들의 직무 및 권위가 실추되고 성전이 파괴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